

가을, 어느 멋진 날

배움의 後園



임효경
전 완도중 교장

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난 요즘 가을이 좋다. 뜨겁고 습한 여름날의 더위를 물리쳐 준 가을의 선선함이 반갑다. 아무 죄도 없이 여름 내내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햇볕을 다시 반갑게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 자연의 품 안에서 순하게, 높고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누릴 수 있어서 마음과 몸이 활기차다. 우리는 문명의 이기 덕분에 실내에서 시원한 쾌적함을 누리지만, 반대급부로 자연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여름 내내 에어컨 앞에서 했던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추워서 움츠러들게 하는 겨울이 가장 싫었다. 가난한 시절이라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웠다. 연탄 한 장 아끼려고, 구들장 바람구멍도 한 개만 열어두었던 우리 엄마.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추웠다. 빨간 내복을 꺼내고 방한이 되지 않는 나일론 교복으로 그 긴 겨울날들을 나야 했다. 머리를 감으려 해도 물을 연탄불에 데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 그래서 긴 머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단발머리마저도 되도록 짧게 잘라주던 우리 엄마는 어느 날, 추위에 곱은 손 때문이었는지 가위로 내 뒷목에 상처를 냈다. 난 병원에 가 보지 못하고 빨간 약만 발라 자연치유를 하였다. 그리고 흉터가 남았다. 그 때 겨울이었다.

그래서 내내 여름이 좋았다. 어릴 적 여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으로 여겨지는 계절이었다. 더위를 식혀 줄 차가운 물은 가난한 집 마당에서도, 펌프질 만으로도 여기저기서 나왔기 때문일 것

이다. 또 여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을 제공해 준 계절이기도 하다. 그 사진은 우리 온 가족이 모처럼 광주 북구 임동에서 동구 중심사 계곡으로 피서를 간, 우리 가족의 역사적 행사를 담고 있다. 흐릿한 흑백 가족사진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얀색 하의만 입은 반나(半裸)차림이다. 물놀이용 반바지는 아니었을 터 다리를 호탕하게 벌린 채, 그냥 자연스럽게 술 한 잔 손에 들고 계곡의 넓은 바위 위에서 젊은 아버지가 활짝도 아니고 슬쩍 웃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아버지의, 낭만을 아는 얼굴이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고 3녀 2남 자식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는 젊은 아버지 시절. 그 시절은 여름처럼 뜨겁고 길었을까?

이 나이되어 보니 가을이 좋다. 어느새 나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쓸쓸함내 옷의 장신구 같이 느껴지다 보니 이 계절과 동병상련이 있다. 특히, 가을엔 긴 세월 함께 한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 있어 좋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여고동창생들과 가을 감성 여행을 다녀왔다. 여수 장도와 돌산 예술랜드를 돌아보고, 순천 와온 해변 마을길과 가야정원에서 가을 석양을 보고 올 참이다. 퇴직을 해서 더 이상 사무나 일에 얽매이지 않는 친구들과, 돌보아주고 있는 손자 손녀들도 오늘 하루는 당당하게 어딘가에 맡기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다. 소풍을 앞 둔 아이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잠도 설치고... 우리 가을 여행은 동창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모두 인정하는 연례행사이다. 이 정도 호사는 충분히 누릴 수 있게 그동안 가족들 위해 수고한 우리니까. 전세버스를 타고 가는 스물세명의 토끼나 호랑이띠 가지내들은 여고 시절의 이름을 서로 부르고, 십대 소녀들처럼 웃고 떠들었다. 버스 안에 유일한 남자인 기사 양반의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

내도 아니다. 개명을 한 예쁜 이름 수빈이 아니고 그냥 광순이다.

경이는 여전히 눈을 내리 깔고, 껌을 좀 씹어 본 모습으로 머리에 힘 좀 주고 나타났다. '내가 트트 경연대회에 나가 보려 해도, 주변에서 말린다. 학폭에 걸린다고...' 맞다 맞다!! 박수 치며 공감할 만큼 험한 친구 아니었는데 말이다. 호쾌하고 멋진 친구일 뿐. 속이는 가을을 닮은 모습으로 와아~ 감탄의 환호를 받았다. 광주 근교 전원주택에 살며, 장을 담그고, 발작물을 가꾸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친구 머리칼은 노오랑고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우리를 대표하는 미모였는데, 가을을 쏙 빼 닮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왔다. 깊은 눈매에 어린 우수를 우리 모두 알아본다. 시니어 모델로 손색이 없겠다고 카메라 들고 우루루 그녀 앞에 모여 작품 사진을 남겼다.

란이는 예술가의 풍모를 자랑한다. 베이지색 프렌치코트에 긴 스카프를 걸쳐 입으니 완전 가을 여인이다. 긴 암 투병을 이겨내고 코로나 시기도 국가의 후원으로 버티며 예술혼을 불태우다 보니 10년 만의 재회를 하게 되었다. 화가인 그녀가 마이크 앞에 다시 서서 가을 시 '우체국 앞에서'를 읊어 주니. 국화 여인의 향기가 천지를 뒤덮는다.

매년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서로를 마주하며 계절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지를 확인한다. 어린 시절을 같이 겪은 우리는 한 마디로 열 속을 알아본다.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서로 눈을 보고, 손을 잡아보아도 안다. 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니가 얼마나 쓸쓸한지. 그래도 그냥 옛날 10대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니 고맙고, 그냥 서로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으니 고맙다. 가을 날 햇살이 따뜻한 날을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일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10월 어느 멋진 날이 그렇게 갔다.

조금 불편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김동수의
나눔톡톡

블과 8시간 만에 1년 치 비가 쏟아진 스페인 일부 지역 폭우로 최소 2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실종자도 상당수라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수천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이번 스페인 홍수는 기후변화로 '들도, 보도, 경험도' 못한 폭발적 폭우로 인해 발생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다 온도가 상승하고 수증기 발생이 많아져 재앙적 폭우가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이와 같은 기상 현상은 이제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급속한 도시화로 배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긴급 재난 문자가 12시간 만에 발송되는 등 스페인 정부의 비상대처로 피해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살인자'라며 스페인 국왕에게 욕설하며 진흙을 던졌다.

우리에게도 집중호우로 인한 아픈 사례가 있다. 2년 전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때 하수처리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컸다. 지난 여름에도 광주·전남지역에 집중호우로 침수나 노후화된 주택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올겨울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예기치 못하게 올 수도 있다. 여기에 우리는 의정 갈등으로 응급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해가 발생하면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나 지자체는 사전 안전 조치와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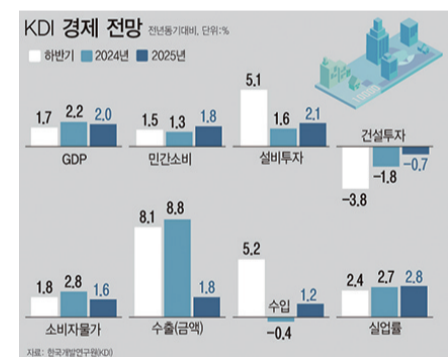
그 하나로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탄소배출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너무나 편리해진 우리의 의식주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안한 생활에 대해 조금 불편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다. 가까운 데는 걷고 일회용품은 줄이고 물건은 아끼며 재활용하면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보자! 하나, 둘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다 보면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구할지 모른다.

동물행동학 박사 제인 구달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단 하루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꿉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진일보 @jnilbo |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 E-Mail : jebo@jnil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